

사창가에서도 콘돔 사용 의무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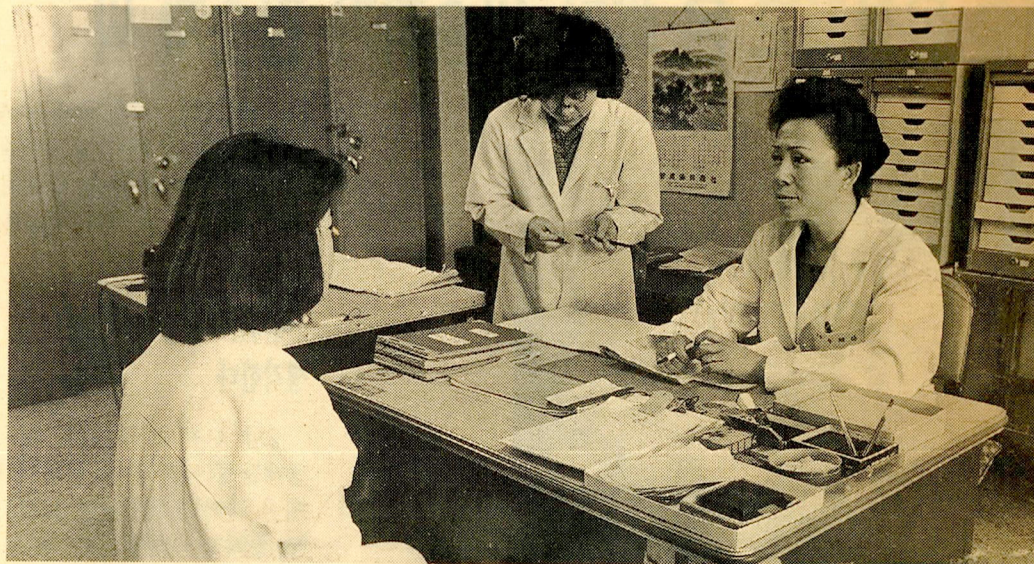
기혼여성 환자의 대부분 남편 통해 성병 감염

무절제한 남성들의 성생활로 부인이나 어린 자녀에게까지 감염되는 성병, 매독, 에이즈를 막기 위해선 건전한 성생활문화 정착과 함께 사창가에서의 콘돔사용이 절실한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매매춘 여성 등 등록관리자를 제외한 일반여성 성병환자 중 기혼자 비율이 74.4%를 점하고 이들 대다수가 외도경험이 있는 '남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콘돔 사용의 경우 성병이나 에이즈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감염확산의 고리인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연구실 임종권박사팀이 전국 3백 66곳의 보건소·병원 등 성병진료기관을 통해 치료받은 환자 6백 17명(일반인 3백 35명, 등록관리자 2백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병의료 보호사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수직감염되는 선천성 매독의 경우도 1~14세의 영유아 및 연소층의 감염율이 49.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남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성생활로 부인에 대한 감염에 그치지 않고 임신을 통해 어린 생명체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 따라서 남성들의 각성은 물론 사창가에서의 콘돔 사용 의무화가 정부정책으로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에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를 용산보건소장 주혜란 박사가 진료하고 있다. 성병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하나 콘돔사용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 절실하다.

선천성 매독의 절반이 14세 미만의 연소층, 남성들 각성 절실

따르면 성병의 확산이나 에이즈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콘돔사용'의 의무화. 그러나 현재 성병이나 에이즈의 감염원이 되고 있는 사창가에서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시 성을 사는 남성들이 단지 "성감이 좋지 않다"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술김에 하다보니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등 콘돔사용에 무지나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병감염원이 남성 성병환자의 경우 매매춘여성·접객부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1%, 여성은 배우자와 동거인·애인에 의해 서가 78.6%, 매매춘 여성들의 66.3%는 업소고객인 남성들

통해 감염됐다고 밝히고 있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의 콘돔 사용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서울역부근 후암동 일대 거대한 사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까지 아직은 콘돔이 무료공급되고 있지 않다. 또 이 부근에서 시판되는 1회용 콘돔은 불량품이 많으며 무엇보다 남성고객들이 콘돔 사용권장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교육 등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사창가의 한 매매춘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콘돔사용을 매번 남성고객에게 권유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콘돔사용을 싫어하고 한번 왔다가 다시 오지 않아 결국 콘돔권장이 단골을

없애는 결과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 성을 사는 남성고객의 각성이 더 절실함을 웅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남성들의 성병치료에 대한 태도에서도 똑같이 지적된다. 중랑 보건소 방역과 권모 계장은 "건강진단 수첩을 발부받는 접객업소 종사자들 가운데서 588같은 사창지대 종사자들보다 이직율이 높은 다방, 이발소 종사자들의 감염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고객에 의해 접객부들이 감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남자들 사이에 "성병은 약국치료로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릇된 생각이 공공연히 퍼져 성병의 완치를 '무지'로 막고 있는 데도 기인해 남성들

의 난잡한 성생활이나 콘돔사용, 성병치료 등에 대한 각성이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용산보건소장 주혜란 박사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성들이 성을 사는 행위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이 무서운 만큼 당장은 콘돔 사용을 절대 의무화하는 정부의 홍보교육과 시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한다. 주 박사는 현재 사창가에까지 콘돔을 무료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콘돔사용을 과감히 홍보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창가 여성들도 성을 사는 남성들이 콘돔사용을 안할 경우 성의 판매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남성들의 콘돔사용을 정착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남성들의 무절제한 성생활로 야기되는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 위험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매매춘을 전용구역에 한해 허용하면서 성을 사고 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성병환자의 87.2%인 절대다수가 남자이고 남성감염자의 연령별 분포도 20대 80.2%, 30대 11.9%, 10대 4.8%, 50대 3.2% 순으로 고교·대재학생은 물론 중장년층 남성들의 난잡한 성행위가 무절제하게 행해지고 있어 일단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외국의 경우 매매춘을 공창으로 인정, 매매춘 전용구역과 두고 성을 사는 남성들까지 관리함으로써 매매춘행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험에서 진지하게 재고돼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